

Venture in,
벤처인

→ Enjoy Venture ©© 이니텍 FC



동근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하다는 이니텍FC

오~필승 이니텍 FC! 축구에 빠져봐!

뜨
겨운 여름이면 딱 떠오르는 스포츠 '축구'. 한반도를 축구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몰아넣었던 한·일 월드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과 감동은 '오~ 필승 코리아!'란 구호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터넷 보안 전문 업체 '이니텍'의 축구동호회 '이니텍 FC'는 2003년 'KT정보보안협력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동료들에게 월드컵 못지않은 감동을 주었다.

2000년 축구를 좋아하는 사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니텍FC의 특징은 그들 자체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들과 꼭 대항전을 벌인다는 것. 그들은 대회를 통해 더 높은 곳에 도전하고 그 준비 과정을 즐긴다고 한다.

"꼭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연습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기에서 이기면 더 좋겠지만 저희는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무언가를 함께 준비한다는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이니텍FC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장락 과장은 경기 결과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보상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축구 관람도 축구를 하는 것

만큼이나 즐거운 일이다. 국가대표 경기나 프로 경기 등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모여 응원삼매경에 빠진다. 축구를 하는 것만큼이나 보는 것에 대한 열정도 똑같은 이들, 역시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답다.

2003년 대회 우승 후, 여러 축구동호회에서 보내오는 비장한 도전장이 줄을 이었다. 처음 도전을 받아들였을 때 이들은 무척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혹시 경기에서 지면 우승팀으로서 체면이 깎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 그러나 그런 염려는 길게 가지 못했다.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그들이 아니던가.

"축구를 하면서 가장 설레는 것은 푸른 잔디밭을 밟을 때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경기를 하는 프로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데, 직접 그 경기장에서 뛰는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신윤섭 사원은 푸른 잔디 위를 뛰는 기분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잔디 경기장 위에서 서면 더 힘이 난다고.

올해는 다른 업체와의 대항전을 더 활발히 하고 싶다는 이니텍FC. 물론 대회입상에 대한 욕심도 있다. 그들은 벤치인으로서, 축구인으로서 항상 도전하고 그것을 즐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듯했다. 앞으로도 그들의 즐거운 도전이 계속되어 더욱 큰 열매를 맺길 기대해 본다.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화 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